

교회봉사가 가지는 유익에 관한 교육학적 고찰

김셋별(서울대), 이호담(서울대)

본 연구는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봉사적 삶이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형태로 실천될 때, 봉사자 개인에게 어떠한 유익을 갖는지 교육학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성경의 다수 구절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섬김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회라는 공간적, 정신적 공간에서 봉사활동이 어떤 형식과 연유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루었는데, 특히 일반적인 봉사활동과는 다르게 교회의 신앙적, 공동체적, 환경적 조건들이 갖는 특수성은 봉사활동의 성격과 상호작용하여 봉사 참여자에게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세부내용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교회는 개인의 정체성이 봉사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며, 이에 따라 목표 자기일치성에 맞게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돕고, 둘째,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근거하여 형성한 사회적 정체성이 봉사활동 참여에 더 가치부여를 할 수 있게 하며, 셋째, 봉사하는 과정에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봉사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발생시켜 이의 지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특성을 가졌다. 넷째로는, 가족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공통분모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를 봉사실천가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봉사현장의 장으로서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다섯째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지속에 유의한 장(setting)요인적 측면에서도 교회는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더불어, 현재까지 교육학에서 다루온 경험연구를 통해, 이러한 봉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유익을 자기발견적, 자기발전적, 사회인으로서의 준비적 측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함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인의 봉사활동, 교회봉사, 교육학, 기대효과

I. 서론

기독교인은 봉사적 삶을 요청받고 있다. 봉사적 삶은, 다름 아닌 나의 유익보다 앞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다(고전 10:24)¹⁾.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비롯하여 사람을 섬기고 돕고, 이롭게 하는 부분과 관련한 직접적인 인용이 다수 등장하며, 특히 신약에서만 세부적 의미를 구분한 봉사관련 단어가 열다섯 개가 넘는다. 이렇듯 봉사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마땅한 책임과 삶의 양식으로서 이해되어오고 있다. 구분된 구체적 형태로서는 봉사‘활동’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일상적으로는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삶의 태도를 일컬을 것이다. 이러한 봉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선행의 일환으로서, 마땅히 추구하고 실천할 가치가 있는 인류 보편적으로 타당한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봉사에 임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개인이 소신껏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봉사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유익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아동기,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초기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그 외 노년층, 혹은 이민자를 비롯하여 여성, 공무원, 예비교사 등 직업과 개인적 특성에 근거한 분류에 따라 봉사자를 다양화하여 살펴본 숭한 선행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Conrad와 Hedin(1989)은 봉사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 영향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적 성장과 발달, 사회적 성장과 발달로 정리하였다.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유능감, 도덕성과 책임감 등은 개인적 성장에 해당하며 학업기술과 기타 지식, 기술, 판단력 등은 지적 성장과 발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성, 참여정신, 직업에 대한 이해와 탐색 등은 사회적 성장과 발달로 분류하였다.

이렇듯 봉사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봉사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국내에서 진행된 봉사관련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나 진로성숙도 같은 자아관련 구인(김미향, 2004; 정해승, 2007; 오대일, 2006; 남현, 2012)을 비롯하여, 문제해결력, 학업적 자기효능감(김은영·유숙영, 2009;), 또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홍봉선·남미애, 2004; 원미순·박혜숙, 2010; 박재숙, 2010; 김지혜, 2012)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한다고 보고된다. 결국, 경험적으로도 봉사활동의 유익이 실제함을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요청받는 봉사적 삶, 단적으로는 봉사활동에의 참여가 어떤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관계에 의해 결과적으로 개인의 유익으로 이어지는지 교육학적 시각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신앙적 명분이나 당위성, 신심의 표현으로 실천되곤 하는 봉사활동이 일반 사회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받으며, 이에 참여하는 봉사자 개인에게는 어떤 내적 과정이 수반되는지 학문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경에서 요청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왜 그에게도 이로운지 역설하고자 한다.

II. 봉사활동에 대한 성서적 접근

1) (고전 10:24, 개정)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 봉사의 기독교적 정신

봉사활동의 정신, '섬김'은 기독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기독교에서의 섬김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차적으로는 사람에게 대한 섬김을 의미할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눅 10장 27절²⁾).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봉사와 관련한 표현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와 사람에게 대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이든, 그 근본정신은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³⁾(고전10:24, 고전 10:33)으로부터 비롯된다.

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양상은 아닐 것이다. 즉 어떠한 목적의식이나 의도성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자기만족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부합하는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고,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봉사에 대한 의미가 신약에서만 무려 열다섯 가지가 넘는 상이한 단어(*uprosedros*⁴⁾, *doulos*⁵⁾, *latreuo*⁶⁾, *botheo*⁷⁾, *antilepsis*⁸⁾, *sullambano*⁹⁾, *splagchnon*¹⁰⁾, *hupeereteo*¹¹⁾, *therapu'oi*¹²⁾, *epikouria*¹³⁾, *litourgeo*¹⁴⁾, *eparkeo*¹⁵⁾, *sunanteesis*¹⁶⁾, *latria*¹⁷⁾)들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성경에서

2) (눅 10:27, 개정)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3) (고전 10:24, 개정)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전 10:33, 개정)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4) (고전 7:35, 개정)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5) (계 22:3, 개정)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6) (계 7:15, 개정)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7) (계 12:16, 개정)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8) (고전 12:28, 개정)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9) (눅 5:7, 개정)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10) (요일 3:17, 개정)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1) (행 13:36, 개정)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12) (행 16:9, 개정)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3) (행 26:22, 개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섬김과 봉사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며, 대상과 형태, 혹은 상황에 따라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개 봉사에 대한 성서적 어원은 diakonia(디아코니아)로 보며, 동종 어근의 변형을 포함하면 신약에서만 93개의 구절, 99회 언급된다(이재서, 2006). 그 외, 구약에서도 봉사를 뜻하는 단어들이 ezer¹⁸⁾나 abad, 또는 amad paneh¹⁹⁾와 같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성서에서 언급하는 ‘봉사’는 1) 지극히 일상적 ‘삶의 자세’로서의 봉사와 2) 구별된 ‘특정 활동’으로서의 봉사로 대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봉사의 어원이 되는, serve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돕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봉사한다(serve)는 것이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행동이라면, 타인에게 봉사하는 경로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암묵적으로서의 ‘봉사활동’ 형태는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대인태도(interpersonal attitude)와 같은 측면에 가까운 ‘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마 26: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요 12: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마 18: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눅 10:33 –37)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테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4:13-14)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았음이라 하시더라.

(마 25:35) 내가 주될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

14) (히 10:11, 개정)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와

15) (딤후 5:16, 개정)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16) (롬 8:26, 개정)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17) (요 16:2, 개정)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18) (창 2:20, 개정)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듣는 배필**이 없으므로

(출 18:4, 개정)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19) (왕하 4:12, 개정) 자기 사환 개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겔 44:11, 개정)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6:3-4)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이나 곤란에 처한 낯선 이를 구제하고 선대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비롯하여 가난과 신체적 약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선행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통해, 이웃 사랑의 일환으로서의 봉사적 삶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서의 봉사는, 특별한 선행이나 구체적인 형태의 활동이기도 하지만, 일상적 삶의 자세나 모습으로서도 이해가 가능하며, 마땅히 행하고 지녀야 할 태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봉사활동의 교육적 요소

1.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자아 관련)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봉사활동은 현재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며 어떠한 활동을 즐기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능숙한지를 비롯해 자기 자신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유용한 기회이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청소년기와 대학생시절이 특히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고,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의 봉사활동에 관련하여 진로성숙도, 자아정체감 등과 같은 자아관련 구인을 함께 살핀 연구가 많다.

먼저, 봉사활동은 개인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 봉사의 과정 자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요하는 성격이 많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훈(2000)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중 자율성과 솔선성, 정체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했으며, 김상진(2002)은 봉사활동 참여도와 인간관계, 봉사의식이 증가할수록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김미향(2004)의 연구에서는 동아리 봉사활동 목적의지도와 봉사 참여도, 봉사 교육과 평가시간 유무에 따라 정체감의 발달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단순히 봉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진행에 있어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자아정체감 발달에 있어 영향을 달리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봉사하는 과정은 진로탐색의 기회로 작용한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해승(2007)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학생이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가운데 독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세부 특성과 진로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한 장태성(1999)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 지속시간이 늘어난다고 밝혔으며, 이 때 봉사활동 만족도는 이후 봉사참여자의 진로의식성숙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아실현의 의지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을 통제했을 때 봉사시간, 봉사형태, 봉사이유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대일, 2006), 남현(2012)의 연구에서는 봉

사활동 지속여부와 진로결정간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전공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며, 전공분야 세분화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 외 미래상 발견까지 하여 총 세 부분(전공선택, 전공세분화 선택, 미래상발견)에 있어 긍정 영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된 봉사활동의 경험은 참여 대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특정 영역에 대한 배움의 욕구로 나타났으며, 전공분야 세분화선택에 도움이 된 봉사활동의 경험은 전공지식의 실천기회를 통해 봉사대상과 전공분야를 경험했다는 보고로 나타났다.

2. 나를 발전시키는 과정 (역량 관련)

봉사활동은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자기를 발전시키고 능력을 발견하여 계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봉사활동의 이러한 측면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바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완성·김기수(2012)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 광역시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봉사활동 경험이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에 있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이와 더불어 학교환경이나 교사 및 친구들에 적응을 하는 학교생활 적응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정숙(2008)은 또래 교수프로그램을 통한 봉사학습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봉사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아 졌고, 봉사학습이 이타심, 성취감, 학습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숙, 2008; 김은영·유숙영, 2009에서 재인용).

봉사활동이 가지는 이러한 효과들은 대학생에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보상과 심리적 반응과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허성호·정태연(20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자기만족과 타인수용성의 개선, 성취감과 자기발견 등을 통한 자기 계발, 사회적 교훈 내재화 등의 결과를 얻게 됨을 밝혔다. 또한 박주희(2010)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습득하고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봉사학습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책무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봉사학습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그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김은영과 유숙영(2009)은 여대생들이 봉사학습을 통하여 갈등해결, 문제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그 밖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Markus, Howard, King(1993)은 봉사학습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감, 책임감, 타인에 대한 관용 등의 다양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보고하였다(Markus et al., 1993; 김은영·유숙영, 2009에서 재인용). 또한 Aquila과 Dodd(2003)의 연구에서는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개인적 발달영역 중에서 자신감(self-confidence), 자존감, 리더십기술, 의사결정 기술 등이 향상되었음을 밝혔고 Eyster와 Giles(1999)는 봉사학습 참여자들이 타인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따라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요컨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학업성취도의 향상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자아탄력성의 상승, 문제해결능력 습득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내재된 능력들을 발견하거나 계발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으로 준비되는 과정 (소양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윤기중(2009)은 그것을 공공복지를 향한 가치 이념인 동시에 자주적·협동적 실천 노력으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 지식, 시간 노력의 자원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학습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세계시민적 자질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다 (홍봉선·남미애, 2004). 이와 관련하여 박재숙(2010)은 청소년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봉사시간과 봉사만족도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을 밝혀 학생들이 충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만족감을 얻게 될 때,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자원봉사가 공동체 의식 뿐 아니라 나아가 시민의식을 기른다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경험의 유무에 따라 시민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원미순·박혜숙(2010)은 전체 집단 중 자원봉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시민의식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밝혔다.

그 외의 연구들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것과 정치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참여하려는 의지,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Myers-Lipton, 1996).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Astin 외(2000)는 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과 리더십,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봉사활동 참여자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대학 졸업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 정치참여, 종교적 이해 등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봉사활동이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기르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며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봉사활동을 개인적 자아성취를 넘어 시민참여에 의한 사회행동으로 조망하기 시작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IV. 교회에서의 봉사활동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은 개인의 내적 성장뿐 아니라 진로나 타인과의 관계 등, 매우 구체적인 면에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기독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가르침의 실천적 측면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대개의 교육

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과 청소년, 초기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유무나 종류가 봉사활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봉사활동의 기대효과를 비교 검증하거나,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시도는 주요한 문제연구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봉사가 갖는 활동적 성격상 봉사 수혜자뿐 아니라 봉사 실천가들에게 다양한 유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온 것과는 별개로, 이것이 신앙이나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특이사항을 갖는지, 이론적, 경험적 성찰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신앙이 전제되지 않은 일반 봉사활동과 신앙적 요소가 결부된 봉사활동이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교회라는 ‘장’이 제공하는 특이성으로 인해 봉사의 기대효과를 더 높인다거나, 이의 지속을 촉진하는 일련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의 비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봉사 과제가치부여

Batson et al(1985)은 다수의 연구가 종교적인 사람이 타인을 더 도와주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뒷받침(p.198)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남을 돕게끔 구조화된, 종교단체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욱 더 도움행동에 참여한다(p.205)고 하였다. 이는 종교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며,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수준은 봉사활동참여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Wilson, Janoski, 1995; Campbell, Yonish, 2003)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명백히 개인이 갖는 종교적 성향과 그 안에서 갖는 신심 등이 봉사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교기관이 타인에 대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체계와 구조, 프로그램 등이 그들의 행동 촉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종교적 봉사활동(religious volunteering)과 세속적 봉사활동(secular volunteering)을 구분하고, 전자는 교회나 회교 사원(mosque), 절과 같은 종교기관에서의 봉사활동으로, 후자는 건강, 보건, 교육시설과 같은 여타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정의(Musick et al., 2008)하기도 한다. Carabain과 Bekkers(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네덜란드의 이민자와 비이민자들이 종교적, 세속적 봉사활동 참여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봉사참여의 차이는 이민자, 비이민자들이 보유한 ‘자원’(resource)이나 기관으로부터의 ‘간청’(solicitation)에서의 차이가 아닌, 종교적 참여(religious involvement)에서의 차이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신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요인도, 봉사활동에 있어 종교성만큼 큰 영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Uslaner(1997, 2001)가 근본주의 신자들(religious fundamentalist)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참여(religious attendance)가 봉사활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는 등 일련의 연구를 토대로 했을 때, 개인의 신앙은 타인을 섬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 형성 및 가치관 강화,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게끔 하는 일련의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상기하고 이러한 삶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체이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성경말씀, 설교자의 메시지에 비추어 재해석하며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예배 중 듣게 되는 설교는 개인의 비판적,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이 자신의 발

전을 위한 방향으로 새로운 의미창출에 기여할 때, 경험은 교육적인 것이 된다. Dewey는 반성적 숙고²⁰⁾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나 지식을 지지하는 근거라고 표현하였는데(Dewey, 1910), 이는 결국 개인의 신앙 성숙과 더불어, 그것이 실천적, 실제적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진지한 예배 참여자체는 비판적 사고, 반성적 숙고를 통해 이를 진정한 교육적 의미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설교의 행간에 녹아져 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자세는 이에 대한 '과제가치'를 높게 지각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이의 중요성을 머리로 알 뿐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기본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과제가치란, 개인이 특정 과제에 대하여 지각하고 평가하는 가치로움, 중요성, 흥미나 유용성 등을 의미한다(Wigfield and Eccles, 1992). 연구의 맥락에서는 주로 학습동기적 차원에서 이를 다루고 있으며, Atkinson(1957)의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Wigfield와 Eccles(1992)에 의해 과제가치는 성취가치(attainment value), 내재가치(intrinsic value), 활용가치(utility value)를 포함한 복합적 개념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과제가치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적극성과 능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과제가치는 주로 학습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중요성과 흥미, 유용성과 이의 만족도간 관계를 살펴며 지각된 과제가치가 높을수록 만족도와 성취도 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Bong, 2001; Bures et al., Abrami, 2002; Ruona et al., 2002; Miltiadou, 2000; 한순미, 2004; 정혜승, 2005).

대개, 봉사활동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같은 학령기 시절에 학생들이 향후 '입학'을 위해 점수 축적하듯 참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더 좋은 기회를 위한, 자기PR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외재적 목표를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서 봉사를 할 경우, 활동을 통한 만족감이나 자아성찰, 그리고 기타 다양한 긍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봉사의 만족도나 기타 효과를 활동의 결과변수로 본 연구들에서는 봉사참여의 동기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랐음을 수차례 거듭하여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고', '하지 않고'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참여의 이유와 동기의 방향성, 그리고 이의 내면화가 결정적인 변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학습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학습동기 중 하나((Pintrich et al., 1993; Pintrich and Schunk, 2002; Song, 2000; Wolters, 1998)로서 이해되고 있는, 과제가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형태로서의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 것,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재서(2006)는 타인을 향한 봉사적 삶의 태도의 결과에 대해 성경을 인용하여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그를 높이며(마20:26-27, 마23:11, 막10:43-44, 눅22:26-27)²¹⁾, 하

20) 반성적 사고(reflectiv thinking). 반성적 숙고(reflection)과 거의 의미가 유사하다.

21) 마 20: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 20:27, 개정)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3:11, 개정)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눅 22:26, 개정)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눔이 기억하시며(히6:10, 마25)²²⁾, 유업의 상을 받는다(골3:23-24, 벧전1:4-5)²³⁾는 내용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향한 봉사적 자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롬14:17-18)²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요12:26)²⁵⁾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하고자 하는 신도들로 하여금, 봉사적 삶에 대한 과제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 정체성의 봉사 동인 제공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태어난다(Rogoff, 1990). 선천적으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이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개인을 둘러싼 환경, 주변 사람, 소속된 집단의 성격과 그 영향에 따라 자아에 대한 평가와 형성은 달라지며 이를 사회적 정체성으로 명명하여, 교육학에서는 개인의 학업성취와 노력과 같은 학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유의한 변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적 정체성은 Turner과 Oakes(1986), Tajfel(1978)과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개인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조직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일부 집단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거나 지대한 부분을 차지(salient)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멤버십의 상이성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분화의 가능성을 유도한 것이다. Turner와 Oakes(1986: 240)는 사회적 정체성이 “준거 집단 구성원들의 감정적, 평가적, 그 외 심리적 요소들과 관련하여, 개인이 갖는 정체성에 대해 부여하는 설명력” 정도로 표현하였는데, 준거 집단의 평가는 집단원이 보유하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멤버십과 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은 일련의 가치판단과 행동 등에 있어 매우 지대할 수 있다. 교육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또래집단이 학업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그들의 학업성취노력이 좌우되며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Fordham and Ogbu, 1986; Kagan, 1990)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정체성의 영향력을 증명해왔다. 교회내 봉사활동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집단원들이 공유하는 동일한 신앙과 믿음, 신념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행동의 동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Swann과 동료들(2010)은 특정 준거집단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

22) (히 6:10, 개정)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23) (골 3:23-24, 개정)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벧전 1:4-5, 개정)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24) (롬 14:17-18, 개정)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25) (요 12:26, 개정)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집단에 대한 헌신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몇 차례의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 이 때 ‘집단’을 신앙 공동체, 즉 교회로 비교해본다면 개인이 갖는 다양한 정체성 중 ‘신앙인’, 또는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교회 봉사활동에 대한 헌신과 지속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소위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갖는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의 존재가, 그 정체성에 일관된 방향에서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자신 또한 그 행동에 대한 실천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Swann을 비롯한 연구 동료들(2009)이 열 차례에 걸쳐 시행한 연구에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지지 및 환기(endorsement)를, 사진을 통해 처치했을 때 결과적으로 친집단(pro-group)적 행동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 교회라는 장소 안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들으며, 기본적으로 타인과 사회를 향한 봉사심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가르침을 받고 주일학교나 교회 임원단, 주방 봉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 등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지지와 환기(endorsement)로서 작용하여, 그들이 일차적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pro-group)하되, 결과적으로는 봉사전반에 대한 행동력을 높일 가망성을 시사한다. Becker과 Dhingra(2001)는 교회 동료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거나 혹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congregational identity), 즉 앞서 언급한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이 자신의 기대와 부합한다고 여길 때, 교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봉사행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동일한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의 존재와 또한 교회로부터 자신이 갖게 되는, 신앙적 정체성은 교회를 ‘위해’, 물론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의 참여는 개인 내적으로, 개인 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정도에 있어, 봉사 동기나 참여경로, 혹은 참여형태 등이 상이한 효과를 갖게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봉사를 수행하거나 봉사적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내적 동기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는 과정 중에 보다 더 높은 긍정정서를 느끼고, 외부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내적 통합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것이 바로 ‘목표 자기일치성’(self-concordance)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교육학에서 목표와 관련한 연구에서 특히 많이 인용되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Ryan, 2002)에서 유래하였고, Sheldon과 Elliot(1999)에 의해 정식으로 제안된 것으로, 어떠한 목표가 내부나 외부 압력이 아닌, 자신의 관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정도를 일컫는다(Koestner et al., 2002). 따라서 교회에서의 예배 참석, 교인들과의 상호작용, 또한 성경에 기반한 자기반성 및 숙고가 따르는 기독교인의 경우, 이들이 형성한 사회적 정체성에 비추어 본다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목표 자기일치성이 높은 활동이라고 이해가 가능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사적 삶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합일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목표의 자기일치성이 높아 목표 추구 과정을 즐기며(Sheldon and Kasse, 1995, 1998; Sheldon et al., 2001), 이를 방해하는 유혹 자극에도 보다 더 꾸준한 실천을 할 수 있어 성공적 성과를 보인다(Koestner et al., 2002). 또한 이러한 목표 자기일치성은 목표몰입(goal commitment)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박종민 외(2011)의 연구에서는, 목표 자기일치성이 목표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봉사에 대한 목표 자기일치성이 확보된다면, 활동 과정에서 목표의 동기를 제공해주며, 이를 쉽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

고 목표 추구에 대한 가치부여를 끊임없이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Hollenbeck and Klein, 1987).

3. 집단행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봉사를 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요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작용한다(Wilson 2000; Fisher and Schaffer, 1993; Midlarsky and Kahana, 1994). 즉 개인 내적으로 발동된 목표의식이나 동기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독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 등이 그 사람의 봉사 행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의 예측변인으로 알려진 요인에는 교육수준과 직장에서의 지위(Amato and Booth, 1997; Brady et al., 1995; Wilson and Musick, 1997)뿐 아니라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학생의 경우 학년과 성적(권지성, 1998; 설경란, 2002; 원미순, 2003; 김욱, 송미영, 2006)등이 일관되게 봉사활동 행동을 설명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봉사 참여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소들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타인의 존재가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체들과의 관계 만족도나 그들의 지지가 봉사활동 참여 지속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과들이 다수의 경험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조휘일, 1991; 조남호, 2005; 오영석, 2005). 즉, 타인의 영향력은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주변인의 봉사에 대한 인식, 가치부여 정도, 참여 경험 유무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교회가 동일한 신앙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 생활, 집단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 즉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변인의 봉사참여는 이를 이어나가고 봉사의 유익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예측력을 갖는다. Arai(1999)은 봉사활동을 타인의 복지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발현된 행동이라기보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의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사회행동을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자본’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긴 하나 일반적으로 집단이나 조직의 존재를 가정한 상태에서,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호혜성, 신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력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공유된 규범 등을 의미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90; Putnam, 1993; Portes, 1998). 따라서 다양한 성격과 기질, 배경을 가진 다수가 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회라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이 제공하는 ‘연합’의 장으로서의 성격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하기에 적합하다. 먼저는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다양한 활동 가운데 호혜성을 경험하고, 교역자와 봉사자, 성도간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 신앙성숙과 상호 격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목적의식을 위해 조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인들이 높게 지각한 사회적 자본은 집단행동의 토양으로 작용하여, 봉사에 참여하게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Wilson과 Musick(1997)은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봉사활동과 관련된 ‘자원’으로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은 봉사에 대한 비용은 낮추고 유익은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교회는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작용할 수 있는 일련의 장벽과 비용에 대한 지각을 낮추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활동에 대한 지각된 비용이나 위험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활동 참여를 촉진

하고 지속하게 하는 긍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Coleman(1988)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째는, 사회적 관계의 완결성(complete)과 구조의 폐쇄성(closed)이다. 여기서 완결성과 폐쇄성이란, 조직이 일회성으로 존재하여 한 번 도움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으로 흩어져 다시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 상호 호혜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구조를 말한다. 교회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정신적 공간이 아닌 정기적으로 예배 참여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신앙 성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구성원간 집결과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폐쇄성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전문용어로 파벌(clique)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쉬운데(박찬웅, 2000), 이는 타종교가 비교적 구원의 길에 있어, 다른 경로나 믿음, 신의 존재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며 다소 다원주의적 입장을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여기는 기독교(요14:7)²⁶⁾는 구성원간 공통된 믿음을 공유하며 구심점이 확실한, 일종의 파벌(clique)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는, 사회적 안정성이다. 이는 첫째 조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구성원들간 지속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찬웅(2013)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물리적, 사회적 이동이 잦다면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Zucker(1986)는 현대사회와 대비하여 전통사회가 신뢰, 친밀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더 좋은 구조였음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안정성의 조건이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납득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이전처럼 지역 공동체로 맺어진 관계도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고, 분주함이 곧 유능함 인양 착각하고 더 많은 활동과 준비에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모임, 공동체, 또는 조직이 존립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신앙 공동체 또한 교회 활동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의견 차로 인해,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교회를 사회적 안정성을 갖춘 공동체로 바라볼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성도는 하나의 교회에 정착하여, 동일하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신앙 공동체를 구축해나간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일정 수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담보 받는다고 해도 무방하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해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념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 인식하고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에 대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마 18:20)²⁷⁾과 더불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갖는 유익과 중요성(히10:23-24)²⁸⁾, 전 4:9-12²⁹⁾, 행 2:46-47³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교회 또한 통상적으로는

26) (요 14:6, 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7) (마 18:20, 개정)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8) (히 10:23-24, 개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9) (전 4:9-12, 개정)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미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신앙고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의 시작자체가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는 곧 공동체이며, 공동체로서의 건강한 기능은 교회의 존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이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Coleman(1988)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그리고 이의 유익을 개개인이 향유하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Becker과 Dhingra(2001)는 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congregations)이 이들의 봉사행동을 촉진하며, 때로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 보다는, 그들의 만남과 모임이 형성하는 일종의 사회 관계망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더 봉사하게끔 하는 기제로서 역할한다고 지적하였다. Park과 Smith(2002)는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친구가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 또는 나아가 교회 밖 사회에서 참여하는 봉사행동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하였으며, 놀랍게도 종교적 믿음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봉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이 기독 신앙을 갖고, 믿음의 표현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시작하는 데 있어 믿음의 여부나 깊이 등보다 오히려 주변인의 행동, 실천여부 등이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족봉사활동 경험과 부모 모델링

교회에서의 봉사활동은 가족 구성원들간 공통분모를 상기시키고 공유된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신앙의 유무, 교회출석여부, 그리고 교회봉사를 비롯한 활동의 참여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청소년, 초기 성인, 중년과 노년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섬김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봉사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는 반드시 대형교회와 같이 많은 수의 프로그램과 장비, 체계를 갖춘 조직뿐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 ‘성도와 의 교제’와 같은 요소들은 누군가의 준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늘 누군가는 봉사로서의 준비과정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방봉사, 주일학교, 안내봉사, 예배 준비팀 봉사, 청소와 같이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넓게는 국내/외로 뻗어가는 선교여행과 같은 사회봉사 등 적재적소에 교인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세대 간 봉사의 현장에 노출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봉사적 삶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어깨 너머’, ‘봄’으로써 학습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며,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대부분의 학습이 대인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타인의 행동을 관찰,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

30) (행 2:46-47, 개정)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 이렇게 사회학습이론에 기반한 설명은 연령대별로 보다 더 적합한 교육적 이론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특히 청소년기의 학습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종석, 2008: 219). 또한 이때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자는 그렇지 않은 타자에 비해 롤모델로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생과 동시에 일종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가정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지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봉사 참여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인물로 지목되어왔다. 이를테면 2002년 조사에서는 비자원봉사자 집단의 부모가 16.3% 비율로 봉사에 참여한데 반해 자원봉사자들의 부모는 봉사에 참여한 경험율이 30.8%로 훨씬 높았다. 즉 부모의 자원봉사 경험과 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자녀의 봉사 참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볼런티어21, 2002). Bandura(1986)가 개인의 행동이 주변인의 유사행동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처럼, 이타적 행동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행동이 강화되고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Bar-tal, 1976). 캐나다 15세부터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 20명을 대상으로 한 Pancer와 Pratt(1999)의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모델'로서의 역할이 가정 안에 있을 때,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동일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은 종교적 신념과 친구, 그리고 선생님의 제안과 자극, 어머니의 권유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예배의 행위와 의미를 넘어서, 교회의 교육적 역할을 시사한다. 특히 봉사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데 있어, 교회 내 부모의 봉사실천을 어릴 때부터 본 경우, 자연스럽게 봉사를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외 가족단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족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유대관계가 강해지며 가족 갈등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등(권승숙, 2009; 이명희, 2002; 이영남, 2015; 이은혜, 2012; 이지원, 2007; 정순정 2007; 황현주, 2010) 다양한 유익을 갖는다. 가족 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미선, 2013; 양수민, 2013; 이상목 2013; 이연희, 2009; 한상미 2011).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 초기성인기가 되면 발달특성상 관계의 망이 넓어지고 다양한 기회에 노출 되면서, 이전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기 쉽다.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지극히 개인 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원자화, 분자화 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봉사에 참여한다거나 다른 모양으로든 동일한 봉사활동에 협조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광경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봉사는 가족의 구심력을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학습효과를 주는 주체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이러한 가족봉사활동의 기대효과로 주목받는 대상자는 바로 청소년인데 이들은 가족단위 봉사를 통해 학교에서의 적응과 긍정 정서, 가족건강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희(2004) 연구에서는 가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이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념과 결속력, 의사소통 부문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기적 처치에 의해서도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갖는 효과성에 대해 말해준다. 또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늘고 자녀교육에 대해 갖고 있던 어려움과 애로사항, 기타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며 가족문제의 예방책으로서도 작동한다고 하였다(김명희, 2003).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상, 학교생활의 성패는 개인의 긍정적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학에서 청소년이 교사나 또래와 맺는 관계, 학업성취도, 학교에

서의 적응은 교육학에서 의미 있는 주제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가족자원봉사활동은 그런 점에서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부각된다. 이상목(2013)연구에서는 봉사활동관련 변인을 참여의 형태, 빈도, 적극성, 기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봉사활동의 형태, 즉 가족과 함께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을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건강성을 예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학교적응에도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가족건강성이 자주 언급되며 가족간 유대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과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고 보고(김정은·최은희, 2010; 김혜래·최승희, 2009; 남영자·박태영, 2009; 박민주·황기아, 2007; 신준섭 외, 2011; 양순미·유영주, 2003; 임정아·이인수, 2006)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봉사활동은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양수민(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봉사활동을 처치효과로 설정하여 사전, 사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보고하는 학교적응, 하위요인으로는 학교교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생활 적응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족봉사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 영향은 경험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으며, 이의 현실화가 매우 열악한, 그리고 점차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간 연합과 봉사참여가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 현실화를 도와주는, 공간으로서 교회는 의미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

5. 봉사활동의 장요인 만족으로 인한 지속효과

청소년 및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가치는 앞선 논의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발전시키게 하며 사회인으로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르게 신에 대한 봉사심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고유한 의의를 가진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과 배경들이 봉사활동의 실천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가? 첫째로, 해당 집단의 관리자가 행하는 역할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상일(1984)은 청소년들의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그들의 봉사활동은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고 이때의 학교 분위기는 학교장이 어떤 지도력으로 교사들을 관리감독 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건강하지 못한 학교 분위기는 폐쇄적이며, 기능적으로 고착된 경향을 보이므로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야 하며, 지역사회내의 봉사수요처인 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봉사활동 지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가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띠는 것은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많은 부분 학교장의 권장 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이다. 수지고등학교 자원봉사 전담교사인 이해숙(1999)은 자신의 봉사체험과 교직원생활을 토대로 청소년 자원봉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자원봉사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과 의지라고 주장한다. 학교장이 어떤 시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를 바라보며,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생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의 이득, 지역사회를 위한 이득의 측면에 대해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학교장의 노력은 점수로 인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을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둘째로, 집단 내에서 봉사활동과 관련한 도움을 주는 도움체계가 있는가가 봉사활동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현재 학교 조직체계에는 공식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체계가 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공식적으로 환경부내에 봉사계가 있으며, 전담교사가 있다. 그러나 학교마다 공식적인 도움체계가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학생들의 도움체계에 대한 인식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 권순미(2000)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내도움체계의 유무, 봉사모델로서의 교사 존경정도, 학교장 권장정도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게 만들거나 봉사활동의 지속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내부의 협력체계 및 도움체계가 구조적으로 갖추어져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자원봉사의 장(setting)으로서 봉사활동 내용의 만족도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영향을 준다. Hitt 등(1979)은 사람들이 업무행동의 결과에서 얻은 충족감은 그들의 미래 행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내적 힘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가 어떤 보상들에 더욱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만족의 근원이 달라진다고 하였다(조휘일, 1990: 41 재인용). 더구나 자신의 업무로부터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삶은 조직을 떠나게 된다고 하여 봉사활동 내용이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한 업무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Vroom (1964)의 의해 만들어진 기대이론이 있다. 기대이론은 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 등에 머무르느냐를 설명하는데 높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론이다. 기대이론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한 업무가 그들의 기대에 상응하지 못할 때는 활동을 계속하려는 동기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계속 프로그램에 머물게 하려면 봉사업무의 수준과 성격이 그들의 기대에 적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oore, 1985: 61). 즉,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바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길 때 그 일을 지속한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자원봉사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봉사활동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Pancer와 Pratt(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봉사활동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만족감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봉사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청소년만으로 국한된 연구는 아니지만 장태성(1998)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내용의 만족정도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도 봉사활동을 지속했던 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업무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봉사활동 내용의 만족감 정도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서 수차례 거듭하여 언급하고, 강조하는 봉사적 삶,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구

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봉사활동이 왜 봉사를 실천하는 당사자에게도 이로울 수 있는지 학문적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에서 봉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 지 성경에 근거하여 살핀 후, 교회가 봉사활동의 장으로서 갖는 요소, 이로 인해 봉사자가 받는 관계적, 환경적 영향 등을 이론적 관점에서 상술하였다. 연이어 봉사활동이 갖는 일반적 유익에 대해 정리하며, 교회봉사활동의 특수성이 어떻게 이러한 봉사에 따른 유익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지 연결하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교회 봉사활동은 단순히,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봉사자 개인에게 봉사라는 과업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하고, 이로 인해 보다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봉사수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종교는 일관성 있게 봉사활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돼왔으나, 교회봉사는 다수의 축적된 설교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타인을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고 동의된 상태라는 점에서, 봉사수행 과정에서 목표 자기일치성이 높게 지각되어 이로 인한 효과 또한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로, 교회 봉사는 성도가 교회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때, 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정체성이 봉사의 수행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일종의 봉사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에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셋째,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이는 다시금 봉사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사회적 자본은 비단 교회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가 갖는 조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이 발생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이는 곧 봉사수행에 있어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있다. 넷째로, 봉사의 현장으로서의 교회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를 가능하게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는 개인단위로 봉사에 참여하더라도, 부모가 교회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모방하여 학습하게 되는 교육적 효과 또한 포함한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갈수록 분주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단위로 봉사에 참여하는 기회는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흔하지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주체로서도 교회의 역할을 재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비단 가족건강성뿐 아니라 자녀의 학교적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봉사를 통해 교회에서 경험하는 가족간 역동성이 갖는 유익의 파급력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봉사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에 있어, 장(setting)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는 봉사를 위한 도움체계, 봉사를 중시하는 교역자의 존재,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조언, 격려의 분위기 등 연구에서 지목한 장요인의 측면에서 충분조건을 만족한다. 이는 학교장과 교사의 봉사 권장정도, 봉사모델로서의 교사, 공식적 도움체계 등이 학생들의 봉사지속에 있어 중요했던 것처럼, 교회의 특성이 교회봉사 실천자들의 봉사지속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신앙을 종교적 영역에서만 설명하려하거나 그것의 영향과 결과가 교회 안에 머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으로 일상의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침투하여 생각의 방향과 행동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왜냐하면, 신앙은 실재하는 신을 신뢰하는 마음이며, 신앙적 삶의 이의 표현과 실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인이 노출되는 모든 영역의 생활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적 삶의 영역과 일치하게 될 것이며 이를 지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봉사활동이 교회 안에 국한되거나, 신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로

이해되기보다, 삶의 방식이자 자세로서, 그리고 학업 및 능력, 사회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개인내적 변화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갖는, 보다 더 포괄적인 활동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요구하고 권면하는 삶의 모습은, 그것을 준수해야만 하는 삶의 표본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내적 소화과정 없이 실행에 급급하기보다 그것의 궁극적 결과가 개인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주목할 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목직한 성경 구절의 요청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믿음으로, 경험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 성경을 거스르거나 반증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성경적 가르침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교육학적으로 부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

참고문헌

- 권순미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권승숙 (2009).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권지성 (1999). “자원봉사 참여형태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경은·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 김명희 (2003). “자연보호 가족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 김미선 (2013) “자원봉사활동 특성,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미향 (2004).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의 만족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상진 (200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고교 YMCA회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옥·송미영 (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13. 343-355.
- 김은영·유숙영 (2009). “봉사-학습이 여자대학생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지역사회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7(3). 1-22.
- 김정숙 (2008). “봉사-학습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혜래·최승희 (2009). “가족건강성과 학교체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159-182.
- 남영자·박태영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4). 47-71.
- 문성훈 (2002).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완성·김기수 (2012). “고교생의 봉사활동이 자아정체감·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 24(1). 23-40.
- 박재숙 (2010). “학교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 17(4) 157-184.
- 박종민·심덕섭·양동민·최경주·노현재·김형진 (2011). 대학생의 학업 목표 자기일치성이 목표물 입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HRD 연구』 . 13(1). 117-138.
- 박종석 (2008). 『기독교 교육심리』 . 서울: 생명의 양식.
- 박주희 (2010). “대학생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찬웅 (2000).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 79-110.
- 박충우 (2013). “사회적 자본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 설경란 (2002).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향후 지속성 예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양수민 (2012) “가족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 원미순 (2003). “대학생의 봉사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원미순·박혜숙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7(3), 225-245.
- 윤기중 (2009).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론』 .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이명희 (2004). “가족자원봉사활동과 일반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상목 (2013). “청소년의 가족자원봉사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남 (2015).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 이연희 (2009). “가족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 이재서 (2006) 『사회봉사의 성서신학적 이해』 . 서울: 세계밀알.
- 이지원 (2007). “가족자원봉사활동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장태성 (1999).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순정 (2007). “가족자원봉사 참여특성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해승 (2007). “인문계 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 진로 의식과 직업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정혜승 (2005). “기업내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과제가치, 학습형태 (집합교육, e-Learning, Blended Learning) 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상미 (2011). “가족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 한순미 (2004). “학습동기 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 18(1). 329-350.

- 황현주 (2010).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가족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허성호·정태연 (2011). “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3). 287-304.
- 홍봉선·남미애 (2004).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Albert, B.(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 Amato, P. and A, Booth. (1997). *A generation at ris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stin, A. W., Vogelgesang, L. J., Ikeda, E. K., and Yee, J. A. (2000). *How service learning affects students*.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Aquila, F. D. and Dodd, J. M.(2003). *Learn and serve Ohio: annual evaluation report*. Cleveland, OH: Cleveland State University.
-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lsted.
- Batson, C. D., Schoenrade, P. A. and Pych, V. (1985). “Brotherly love or self-concern? Behavioural consequences of religion.” *Advances in the psychology of religion* 11. 185-208.
- Becker, P. E., and Dhingra, P. H. (2001). “Religious involvement and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civil society.” *Sociology of Religion* 62(3). 315-335.
- Bong, M.(2001). “Role of self-efficacy and task-value in predicting college students’ course performance and future enrollment inten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4). 553-570.
- Bourdieu, P.(Ed.) (1986).*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 h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rady, H. E., Verba, S., and Schlozman, K. L.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269-295.
- Bures, E. M., Amundsen, C. C. and Abrami, P. C. (2002). “Motivation to learn via computer conferencing: Exploring how task-specific motivation and CC expectations are related to student acceptance of learning via CC.”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7(3). 249-264.
- Campbell, D., S. Yonish (2003). “Religion and Volunteering in America.” in Smidt, C. (ed.). *Religion and Volunteering in America. In Religion and Social Capital*. Waco, Tex.: Baylor University Press.
- Carabain, C. L. and Bekkers, R. (2011). “Religious and secular volunteering: A comparison between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Voluntary Sector Review* 2(1). 23-41.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 Deci, E. L., and Ryan, R. M.(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New York.
- EA Ruona, W., Leimbach, M., F Holton III, E. and Bates,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utility reactions and predicted learning transfer among traine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6(4). 218-228.

- Eyler, J. and Giles, D. E. (1999). *Where's the learning in Service-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Fischer, L. and K. Schaffer. (1993). *Older volunteer*. Newbury Park, CA: Sage.
- Fordham, S., & Ogbu, J. (1986). Black students' school success: Coping with the "burden of 'acting white.'" *Urban Review*, 18, 176-206.
- Hollenbeck, J. R., & Klein, H. J. (1987). Goal commitment and the goal setting process: Problems, prospects and proposal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 18-23.
- Markus, G. B., Howard, J. P. F. and King, D. C. (1993). "Integrating community service and classroom instruction enhances learning: Results from an experi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5(4). 410-419.
- Midlarsky, E. and E. Kahana. (1994). *Altruism in later life*. Thousand Oaks, CA: Sage.
- Miltiadou, M. (2000). *Motivational constructs as predictors of success in the online classroom*. The Arizona Educ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AERO) 13th Conference, Oct. 2000.
- Musick Marc, A. and John, W. (2008). *Volunteers: A social profile*. Bloomington. IN: Indiana.
- Myers-Lipton, S. J.(1996). "Effect of a comprehensive service-learn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level of modern racism."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3. 44-54.
- Kagan, D. (1990). How schools alienate students at risk: A model for examining proximal classroom variables. *Educational Psychologist*, 25, 105-126.
- Koestner, R., Lekes, N., Powers, T. A., & Chicoine, E. (2002). Attaining personal goals: self-concordance plus implementation intentions equ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231-244.
- Pancer S, Pratt M. (1999). "Social and family determinants of community service involvement in Canadian youth." in Yates, M and Youniss, J. (Ed.) (1999) *Roots of civic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mmunity service and activism in youth* : 32-55.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Youniss James. (1999). *Roots of Civic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ommunity Service and Activism in Yo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J. and Smith, C. (2000). "To whom has much been given: Religious capital and community voluntarism among churchgoing Protesta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9. 272-286.
- Pintrich, P. R., Marx, R. W., and Boyle, R. A. (1993). "Beyond cold conceptual change: The role of motivational beliefs and classroom contextual factors in the process of conceptual chang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2). 167-199.
- Pintrich, P. R., and Schunk, D. H.(2002). *Motivational in education*. Merrill Prentice Hall
- Portes, Alejandro(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eldon, K. M., and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82-497.
- Sheldon, K. M., and Kasser, T.(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ong, S. H.(2000). "Review of approaches for designing motivationally adaptive web-based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4(3). 177-204.
- Swann Jr, W. B., Gómez, A., Seyle, D. C., Morales, J. and Huici, C. (2009). "Identity fusion: the interplay of personal and social identities in extreme 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995.
- Tajfel, H.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 In H. Tajfel (Ed.), *European monographs in social psychology: Vol. 14.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pp. 61-76). London: Academic.
- Turner, J. and Oakes, P. (1986).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identity concept for social psychology with reference to individualism, interactionism, and social influ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237-252.
- University of Guelph and University School of R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Arai, S. M.(1999). *Voluntary associations as spaces for democracy: Toward a critical theory on volunteers*. University of Guelph.
- Uslaner, E. M.(1997). *Faith, hope and charity. Unpublished Manuscript*.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 Uslaner, E. M. (2001).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 how trust and religion shape civic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104-117.
- Verba, S., K. L. Schlozman and Brady, H. E. (1996).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igfield, A. and Eccles, J. S. (1992).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task values: A theoretic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2(3). 265-310.
- Wilson, J. and Jonaski, T. (1995).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Volunteer Work." *Sociology of Religion*. 56. 137-152.
- Wilson, J. and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694-713.
- Wilson, J. and Musick, M. (1999). "Attachment to volunteering." *Sociological Forum*. 14(2). 243-72.
- Wilson, J. (2000). "Volunteering. Forthcom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 Wolters, C. (1998). "Self-regulated learning and college students' regulation of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 224-235
- Zucker, L.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